

光日春秋



안톤 솔트  
독일 저널리스트

2026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미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에 대한 재판은 첫 결과들을 내놓기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시사하고 있다. 세계 정치와 변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 작은 한반도 국가는 그 파도에 떠밀리고 있는 듯하다. 결코 쉽지 않은 시기다.

그러나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바로 사상 최저 출산율로 인한 노동력 공백과 급속한 고령화가 초래할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가 더 많은 외국인인 한국 사회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지난 2년간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민 정책과 다문화 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을 맡아왔다. 그 과정에서 보다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 이민자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논의를 이어왔다.

이민 기रो에 선 한국,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한국은 오랜 세월 외부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한 나라가 아니었다. 전쟁과 박해, 더 나은 삶을 찾아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떠났고 현재 전 세계에는 약 700만 명이 넘는 재외 동포가 살고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인 많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시선을 받는 일이 흔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현재 한국 인구의 약 5%가 외국 출생자이며 이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과 소프트웨어의 확장은 다양한 배경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정착하기를 원하게 만들었다. 급격한 변화는 수 세기 동안 비교적 단일한 사회구조를 유지해 온 한국에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민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한국 사회 곳곳에서 두려움이나 반감이 함께 감지된다. AI와 로봇의 시대에 과연 더 많은 외국인이 필요한가, 이민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 유럽에서 돌아온 갈등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질문들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 자체는 충분히 타당하며 곧바로 혐오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도과 정책의 언어로 전환하는 일이다.

나는 기술발전이 제조업, 농업, 어업, 건설업 등에서 줄어드는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육체노동은 이미 인기 있는 선택지가 아니며 일부 분야에서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한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노동력 공백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은 결국 더 많은 외국인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

라 이미 시작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의 문제다.

이 흐름은 단지 육체노동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와 삶의 파트너, 더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는 이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역시 세계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정책과 동맹은 바뀔 수 있지만 오늘날 사람의 이동 자체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 선택은 단기적인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형태를 결정짓는 방향의 문제다. 불가피한 변화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함께 살아가 것인가. 다문화주의는 그 자체로 선도 약도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의 문제다.

미국과 독일을 비롯해 50개가 넘는 민족과 수 백 개의 언어가 공존하는 중국까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들 대부분은 다문화사회다. 애플,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기업들 역시 이민자 혹은 이민자의 자녀들에 의해 창립되었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이러한 사회들은 성장과 활력만큼이나 동시에 갈등과 긴장이라는 현실을 함께 안고 있다.

변화는 언제나 불편함과 긴장을 동반한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거부가 반복될수록 사회적 균열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삶은 본질적으로 변화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사계절이 분명한 이 땅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은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고통스러운 과정이 따르더라도, 변화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글로벌하고 코스모폴리탄한 한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사물현상(事物現像)에 대한 믿음

이야기하자면 사물현상이란 인과가 실현되는 현상이며, 죄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현상 모두가 진리실상의 응화신임을 믿는 것이 큰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전제가 무너지거나 확립되지 아니하고는 은혜를 생산하는 건강한 믿음에 들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물현상 하나하나가 모두 다경의(敬畏)의 대상이다. 결코 가벼이 대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 모든 원리가 눈에 보이고 확고부동해지면 비로소 사물 현상에 대한 바른 믿음의 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물현상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보은해야 한다. 사물현상은 무한한 은혜의 보고이다. 이 보고에 내장된 무한한 은(恩)은 발견하는 자의 것이요 활용하는 자의 차지가 된다. 비록 내가 바라는 바와 정반대의 현상이 밀어닥칠 때라도 그 속에 숨어 있는 은을 발견하여 활용하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되면 순풍도 역풍도 모두 은혜이다.

순경도 역경도 은혜이다. 이러한 믿음 전체 위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사람은 미물 곤충에게서도 도움을 받지만 원망하고 배은하는 사람은 미물 곤충에게서도 해를 입는다는 경전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믿음 전체 하에 늘 감사하며 어디서나 감사보은하는 사람이 바른 믿음생활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으로 감사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행운아이며 천하의

은혜를 이끌어 내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만일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든 원망생활을 감사보은하는 생활로 바꾸어보라. 놀라운 변화가 올 것이다.

끝으로 셋째, 당처마라 참회(懺悔)해야 한다. 사람이 결코 완전결함 존재가 아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고 능하지 못한 부분,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성인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극치의 자리에서는 알지 못하는 부분, 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 않았던가.

하물며 우리 범부 중생이 어찌 부족과 잘못, 실수라도 없겠는가. 또한 보통 필부들의 부족한 속에서도 능히 잘 알고 잘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 않았던가. 이와 같이 앞의 부분이나 능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결코 완전결함 존재가 아니다. 이에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을 신과 동물의 중간적 존재라는 말로 정의하였다. 즉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요소를 선천적으로 타고난 존재라는 의미일 것이다.

사람이란 잘못과 실수가 있기 마련이므로 그 잘못이나 실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바로 참회이며 일마다, 당처마에 진정어린 참회 생활을 할 때 모두로부터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절제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진행된다면 그 진실성은 하나의 큰 응어리로 형성되어 크고 상서로운 기운을 불러일으켜 모든 생활을 안락하게 해 줄 것이다.

社說

전두환 회고록 대법 판결 5·18 왜곡 근절 계기

5·18을 왜곡 폄훼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묻고 출판·배포를 금지한 것은 사법기관의 결정으로 적극 환영한다.

대법원은 어제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과 아들 전재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고 회고록 중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소송 제기 8년 8개월만에 나온 확정 판결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의미가 크다.

2017년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은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허위 사실을 진실인 양 호도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부인했으며 발표포도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차원이라고 기록한 것이 대표적이다.

헬기사격을 목격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는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으로 모욕했는데 법

원은 이런 사실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회고록 내용 가운데 허위사실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한 것도 소득이다.

대법원 판결은 5·18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고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지만원을 비롯한 왜곡 폄훼 세력에 경고장을 보내 5·18 왜곡을 사들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고 회고록 중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소송 제기 8년 8개월만에 나온 확정 판결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의미가 크다.

사망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적 표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및 출판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도 이번 판결에 담긴 의미다. 5·18 진상규명은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따라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도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이 남았다.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공동혁신도시 정신으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유치 희망 기관 리스트를 공개했다. 40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지역 산업과 연관된 기관 10개를 핵심 유치기관으로 정했다.

핵심 유치 대상 기관을 보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농수산 및 에너지 관련 기관으로 전남도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광주시는 국가 데이터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유치해 'SI 중심도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가져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무안으로 이전해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최대 배출자인

여수·광양 국가산단에는 한국환경공단을 유치해 탄소중립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유치 대상 기관 선정이나 배치 계획 모두 합리적으로 보인다. 다만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로 모두 모아야 한다는 나주시와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장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있어 무엇보다도 조율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한 곳에 모든 일부를 나누듯 전국 유일의 공동 혁신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의 '상생 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내 갈등은 최소화 하고 목표한 기관 유치에 성공하도록 힘을 한 데 모아야 한다. 통합 특별시에 더 내려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도 있고 전국 유일 공동 혁신도시라는 명분도 있다.

無等鼓

KIA 타이거즈는 일본 아미모시마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하면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가고시마현에 속해 있는 아미모시마. 오시마는 '큰섬'이라는 뜻으로 일본에서는 세 번째로 큰 섬이다.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된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섬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낯선 곳이다. KIA의 스프링 캠프 소식을 통해 아미모시마라는 이름을 처음 접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인구 6만명 규모의 섬이 KIA로 인해 활기를 띠고 있다.

이범호 감독을 포함해 21명의 코칭스태프와 '주장' 나성범을 필두로 42명 선수 등 63명의 선수단이 캠프를 위해 아미모시마를 찾았다. 취재를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이들에게 하면 아미모시마는 모처럼 스프링캠프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곳은 일본 요코하마 2군 선수단이 캠프지로 사용했던 곳이다.

KIA의 방문은 큰 쇼파몰이나 세계적인 체인의 캠퍼스가 없는 시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당달아 '한류' 열풍도 불고 있다. 취재를 위해 찾은 이곳에서 몇 차례 짹짹 놀랄 일이 있었다. 호텔 체 크인을 담당할 직원이 능숙한 한국어로

응대를 했다. "한국인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는 어색하지 않은 억양으로 유창한 한국어로 구사했다. 드라마를 보면서 독학으로 배운 한국어 실력이라는 말에 다시 한번 놀랐다.

KIA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아미모시마 인근에서 열린 테니스대회 현장에서도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들었다. 초등학생들이 KIA 선수들과 관계자를 보면 한국말로 먼저 인사를 했다. 식당에서 한국어로 감사의 인사를 적은 쪽지를 받기도 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한류 열풍이 처음에는 당혹스럽기도 했고, 이내 뒤틀린 모습을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어렸을 때 일본 애니메이션과 음악을 통해서 일본어를 배운 친구들이 많았다. 지금은 반대가 됐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실감했던 한류 열풍을 일본의 외딴섬에서 몸소 느끼고 왔다. 가깝고도 먼 나라, 하지만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문화로 하나가 됐다.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던 스프링캠프였다. 그 바람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김여울 디지털·체육부장 wool@

기 고

빛으로 짓는 설빔

계 입고 싶던 옷을 시골 아이가 입고 있었다. 도회지 아이인 난 괜스레 움츠러들었다. 아버지는 왜 한 번도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사 주지 않았을까? 그 청록색 바지는 볼에 금방 구멍이 났다. 엄마를 따라간 가게 난롯물에 일부러 살짝 갖다 댄지도 모른다.

설빔은 내 귀한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다. 지난해의 역운을 다 떨치고 새해에는 무탈하고 건강하게 자라라는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 형제가 많은 우리 집은 윗 형제의 옷을 물려받거나 작아진 옷을 늘이거나 깨끗이 빨아 설빔을 대신했다. 설날이 다가오면 엄마는 으레 낡은 '개살'을 일일이 풀어서 해진 실은 잘라내고, 구불구불한 실에 뜨거운 김을 쪄어 편 뒤 다시 감아 스웨터 짜는 집에 맡겼다. 뒤돌아보면 하나도 달갑지 않았던 그 설빔이 엄마의 기원이고 사랑이었다.

설빔을 입기 전에는 반드시 목을 씻는다. 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새해에 결맞은 사람으로 만드는 작은 의식이다. 지난해의 역운과 절망과 슬픔을 모두 흘려보내고 깨끗한 새 몸에 새 마음을 입히는 것이다.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으면 독감으로 아팠던 아이, 오빠에게 대들던 아이, 엄마에게 떠선 아이는 모두 사라지고 한 살 더 먹은 의젓한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설빔은 형식적인 옷이 아니라 새해를 향한 염원이다. 어렸을 적, 엄마가 등잔불 아래서 며칠 동안 바지저고리와 두루마기를 새로 짓거나 손질하던 기억이 어렵게 떠오른다. 온라인으로 쉽게 새 옷을 구입할 수 있는 요즘에도 다가오는 설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일만큼은 여전히 의미가 크다.

페루 쿠스코 사람들은 새해에 노란빛을 입는다. 아르

마스 광장은 전야 축제의 여운이 짙었다. 타르초 같은 노란 리본들이 바람에 나풀거려 황금빛 물결이 일렁였다. 가게마다 노란 속옷들이 쌓여 있고, 사람들은 노란 꽃목걸이를 걸고 환하게 웃었다. 나도 쿠스코인처럼 노란 속옷을 갈아입고, 노란 리본으로 좋은 기운을 붙잡고 싶었다. 잉카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신은 태양신 인티(Inti)였다. 태양을 닮은 노란색은 축복과 재물,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광장 한가운데서 태양의 후예들과 섞이니 당달아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스며들었다. 나는 꽃목걸이를 사서 목에 걸고 노란빛을 입은 채 어제 요리 냄새가 감도는 광장을 지나 왔다.

찬란한 아침 햇살로 설빔을 짓고 싶다. 새해의 첫 태양을 간절히 맞이할 때면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충만함이 있다. 몇 해 전부터 게을러져 일출을 보지 못했지만 이번 설날에는 새벽부터 발을 동동 구르며 붉은 해를 기다려 볼 작정이다. 설날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설빔으로 갈아입던 마음으로, 정한수를 떠 놓고 비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한 해의 목은 것들을 여명으로 칼칼이 씻어 낸다. 내가 떠오르는 태양만을 바라보고 쏟아지는 그 빛에 잠시 눈멀어 하얗게 되는 순간, 태양이나를 위해 눈부신 은총을 내리는 순간, 그 순간만큼 태양은 내 것이다. 온몸 가득 빛이 차오르고 상서로운 기운이 하늘로 뻗는다.

드디어 새해 첫날, 황금빛 설빔을 입는다. 이제 고통에 절은 나는 빛 속에서 부서졌다. 그 황금빛 설빔을 입고 어제의 내가 아닌 새 사람으로 몸도 마음도 순전하게 리셋된다. 고대하던 새날이 열린다.



전선  
시인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다. 온 집안 가득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졌지만 내 마음 한쪽이 타들어 갔다. 아버지는 저녁때가 다 되어 나를 양동시장으로 데려갔다. 시장은 환한 불빛 아래 북새통이었다. 옷가게들이 죽 늘어선 곳에 이르자 내 눈길은 부지런해졌다. 아버지가 옷을 고르라기에 옷걸이에 걸려 있는 한 벌짜리를 가리켰다. 연분홍 바탕에 진분홍 작은 연속무늬가 있는 재킷으로 우리 반의 부잣집 아이가 입은 옷이었다. 나도 그 옷을 입으면 그 애만큼 예뻐 보일 것 같았다. 아버지는 주인에게 가격을 물어보더니 망설이다가 돌아섰다. 몇몇 가게에 마음에 드는 옷이 있었지만 내 기대는 빛나갔다. 결국 노란 바탕에 주황색 큰 꽃이 찍힌 도톰한 윗옷과 청록색 바지를 샀다. 초등학교 5학년이 봐도 그 배합은 촌스러웠고 싡 티가 났다.

집에 돌아와서 옷을 입어 본 후에도 내내 뽀로뽀했다. "우리 막냇말, 이쁘기만 하구나." 엄마가 위로해 주었다. 자기 전 머리맡에 놓고 몇 번을 쳐다봐도 어쩐지 마음이 가지 않았다.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고 시골 할아버지 댁에 세배를 드리러 가는 길,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설빔을 뽐내며 고무줄놀이를 했다. 내가 그렇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24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 예 향 부 220-0692 | 기 획 관 리 국 227-9600 |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8 | 여 론 매 체 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 사 진 부 220-0693 | 디 자 인 실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
제 2 사회부 220-0680 | 디 지 털 부 220-0697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